

# “대학시절부터 꿈꾸던 평생의 목표”

## 대기업 경영인에서 출판인으로 변신한 김용원씨

지난 2월 ‘삶과 꿈’이라는 귀에 익은 상호로 출판등록을 마친 김용원씨(56)는, 단 한권의 책을 선보이기도 전에 주목을 받게 된 ‘별난’ 출판인에 속한다.

그것은 그가 재벌그룹 계열사인 대우전자 대표와 대우경제연구소 회장직을 두루 거친 전문경영인 출신이란 이력 때문만은 아니다. 명성보다는 대기업을 운영했던 ‘숨씨’를 출판계에서도 유감없이 발휘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일 것이다.

16년간 근무하던 기업체를 떠나 김사장이 과감하게 출판인으로의 변신을 시도한 것은, 자신이 대표로 재임하던 시절인 86년에 창간한 대우전자 사보「삶과 꿈」을 인수받게 되면서. 잡지발행과 함께 출판을 병행하게 된 이유를 준비작업에 여념이 없는 김사장은 이렇게 말한다.

“막연한 생각과 우연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대학시절부터 줄곧 꿈꾸어오던 평생의 목표였으니까요. 마땅한 계기가 없었던 차에, 오랜 직장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이제는 시도해볼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고, 시작한 이상 배우는 자세로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이미 기업인으로서의 탁월한 능력과 실력을 보여줬던 그는 각오에 걸맞은 출판방향을 잡아놓고 있다. 아직까지는 업무과약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김사장은, 시류적이고 충동적인 베스트셀러 만들기에 급급하지 않고 그동안 끊임없이 구상하고 준비해둔 꿈의 실현에 주력하게 될 것이라고 그가 현재까지 굳히고 있는 기획은 대강 세가지 정도로 압축된다.

가장 먼저 하고픈 것은 인간승리의 귀감이 될만한 감동적인 수기의 출판이다. 평범한 주부의 일상에서 벗어나 최고의 세일즈사원이 된 한 주부사원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움직이는 대리점 주부사원 백숙현」이 도서출판 ‘삶과 꿈’의 첫번째 단행본으로 나온 것도 그런 그의 의지에 힘입어서다. 또한 고아출신으로 어렵게 자라나 군센 의지로 중소기업인으로 자리잡은 서한수씨의 자전적 수기도 준비중에 있다. 다음으로 김사장이 염두에 두고 있는 기획은 아직도 미진한, 그리고 불균형적인 우리의 사회구조를 개혁하는 데 도움이 될만한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는 책을 출판하는 일이다.

“결코 탄탄하다고만 자신할 수 없는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다룬 서적출판이죠. 그런 의미에서 현재 진행중인 「일본인의 논리」란 책은, 일본의 성장과정과 실상 그리고 그 장·단점을 전문가의 눈을 통해 바라보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보사회로 지칭되는 시대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첨단기술개발을 소개한 출판물도 기획중인데, 의학을 비롯해 폭넓게 접근하겠다고 한다.

김사장에게 있어 단행본 출판이 주력사업이라면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잡지「삶과 꿈」의 발행. 약30만부 가량의 고정물량을 대우전자로 납품할 수 있기에 그렇다.

독립후 첫호가 되는 9월호부터는 유가지라도 판매할 예정인데, 사보적 성향에서 탈피해 서민적인 대중화를 지향하고 싶다는 그는, 진

“막연한 생각과 우연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늘 꿈꾸어오던 일이었습니다. 마땅한 계기가 없던 차에, 오랜 직장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이제는 시도해볼 때가 되었다고 여겨져 출판사를 차렸죠. 시작한 이상 배우는 자세로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김용원씨.

지한 일상의 살아숨쉬는 갖가지 이야기를 읽고 싶단다.

제호처럼 삶을 소중히 가꾸고 꿈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내용을 담아 내겠다는 김사장은 「삶과 꿈」이 직장과 가정생활에 작으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기존 발행부수의 30%가 넘는 양을 시중에 판매할 계획도 세웠다고. 4×6판 140면 정도의 외형을 크게 바꾸지 않는 것은, ‘포켓용 핸드북’이라는 이미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전하는 그는, “반품의 경우 낙도 등 책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기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판이 단순히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문화사업임을 강조하는 얘기다. 역경과시련, 여려가지 형

태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활자로 양념해, 같은 처지에 처한 많은 이웃들에게 희망과 격려를 주고 싶다는 김사장은, “나도 할수 있다”는 독자의 의지를 유도하는 출판이 바로 ‘삶과 꿈’의 존재 이유임을 거듭 밝힌다.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졸업후 조선일보 경제부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 편집국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사장이 16년간의 언론계 경험과 같은 기간의 기업경영을 발판삼아 가까이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좋은 책을 출판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지 않다.

— 최태원 기자

脱 手 作 業 선언!!

완벽한 페이지 조판  
민기획 전산조판을 이용  
하시면, 대지작업에 소요되는  
—人力과 時間을 줄일 수 있습니다.



編輯教育을 받은 오퍼레이터

良質의 組版物

出版社의 대만족

전화연락을 주시면 민기획  
專用的 『電算組版活字體』  
카탈로그를 가지고 찾아가  
뵙겠습니다.

한국컴퓨터그래피의 入力編輯機 PHOENIX-2000 32대,  
HCG-8305 1대, 레이저프린터 LASERSETTER-4000 (400  
dpi) 1대, LASERSETTER-COMPOSE (600 dpi) 1대, 出  
力機 NEWSSETTER (IBX) 1대, 現像機 TRISTAR 1대

**민기획**

Total Publishing



100-282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 2가 192-30 (신성 Bldg. 318호)  
TEL. (02) 277-6077, 6078 277-1038, 1039  
FAX. (02) 277-6101